

# 로버트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15차시, 신약성경의 특별계시, 성경, 주요 구절, 고린도전서 14:37-38.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신약의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주요 구절: 고린도전서 14:37-38.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계시록과 성경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성경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말하는 두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질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12장인데, 다윗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위대한 영감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후서 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4:37과 38입니다. 고린도전서 14:3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전해졌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되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왔는가? 너희에게만 이르렀는가? 그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해야 한다.

유대적 맥락에서, 또는 이 경우 유대적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방인들에게 사도인 바울은 히브리인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운 진술입니다. 절대적으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의 글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 바울은 고린도 회중의 오용을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쓴다. 그것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고린도인 중 일부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듯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4:40.

그는 풍자적인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여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36절. 바울은 자신의 말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Christian Standard Bible.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무시당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건강을 원합니다. 그는 영적 은사가 풍부한 그 교회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이자 선지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쓴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37절. 만약 누군가가 바울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와 다른 신자들도 그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거부와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을 권위 있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을 권위 있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사도적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영적 은사 사용을 억누르고 싶어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39, 40.

바울은 그의 글이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이며 신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원후 1세기의 유대인에게 중대한 주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하나님의 구약성경 계명과 같은 수준에 둡니다. 따라서 그는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과 확장하여 그의 모든 서신에 대한 영감과 신성한 권위를 주장합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15, 16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성경과 동일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15, 16.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내를 구원으로 여기십시오.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모든 편지에서 하는 것처럼. 그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지하고 불안정한 자들은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스스로 파멸로 이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의 글을 고려하지만, 바울이 쓴 모든 것을 성경, 거룩한 성경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디모데후서 3:14~17. 성경 교리를 구성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1,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모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중상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성급하고, 허영심에 부풀어 오르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그들 중에는 집안에 몰래 들어가 연약한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로 놀리고 여러 가지 정욕에 미혹되어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반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리를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타락했고 믿음에 있어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디모데후서 3:10, 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행실과 내 삶의 목적과 내 믿음과 내 인내와 내 사랑과 내 확고함,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리스트라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썼습니다. 그 박해는 내가 견뎌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굳게 믿는 것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지 알며,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에

나타나실 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가 되든 안 되든 준비하고, 온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참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하며 자기의 정욕에 맞는 스승들을 모으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속으로 떠돌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의 직분을 다하라. 이는 바울의 자서전적 말씀이지만 나는 이미 제물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으니 이는 그의 죽음을 가리킴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했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사랑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3:1~9에서 바울은 마지막 날의 끔찍한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바로 옆입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꽤 멀리 지나간 일인데, 그는 말하길,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들었어, 그것은 단수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방식이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며칠 동안 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같은 끔찍한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0절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분은 나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따른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을 나열합니다. 여러분은 내 가르침, 그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내 행동, 바울의 삶의 방식. 내 삶의 목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표를 전수했습니다. 내 믿음은 그의 믿음이나 그의 충실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내, 나의 사랑, 나의 확고부동함, 나의 박해, 그리고 나의 고난.  
그는 안디옥, 이고니온, 리스트라에서의 구체적인 일화를 나열합니다.  
내가 견뎌낸 박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기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계 사도행전 14장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끝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많은 박해 속에서도 낭송했습니다. 누가도 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다. 많은 박해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바나바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영혼을 강화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사도행전 14:22, 믿음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입니다.

마지막 날의 불경건함과 배교. 베드로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의 영감에 대한 두 가지 위대한 고전적 텍스트가 마지막 날의 거짓 가르침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축된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성경과 그 충실한 해설은 그런 것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굳게 믿는 것을 계속하라.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인 로이스와 유니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것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신도 키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굳게 믿는 것을 계속하세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5절에서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떠올립니다, 디모데, 그 믿음은 먼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지금은 당신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내가 맞다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방인인 그리스인과 결혼했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젓먹이 아기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의미의 폭이 넓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신성한 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 성경, 신성한 글이 있습니다.

이 단어, writings, graphae, graphae 는 신약성서에서 성경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분명히 다른 종류의 writings도 있고,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언급되지만, writings는 성경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인 듯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굳게 믿는 것에 계속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또 어려서부터 거룩한 기록들을 알고 있었으니, 그 기록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설명은 16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영감을 받았고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훌륭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까지 가면, 성경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움으로 훈련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요, 집에 성경 100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거룩한 기록들을 기뻐하는데, 그 기록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게 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은 이 경우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 전도 펠로우십의 신학 고문이었고, 그 운동과 창립자의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그가 자신의 배경, 그가 가르침받은 것에 반하여 설득되어야 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전도 사역인 아동 전도 펠로우십을 창립했습니다.

활동적인, 10년 전에 성경 공부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활발하고 지속적인 성경 교육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CEF 회장은 우리가 코카콜라보다 더 세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일년에 두 번 정도 남에서 북한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CEF는 24페이지 분량의 성경을 담은 복음 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국경이 개방된다면, 그 독재자와 그의 공산주의 이념 아래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굶주리고 있는 북쪽의 친척들을 위해 사역할 준비가 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CEF의 지도자는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고한 괴짜였고,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지 능력과 정신 능력이 약간 부족한 동네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남자의 문 앞에 나타나서, 신이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은혜로만 구원받고,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와도 비밀리에 논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남자와 논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그의 일요 학교 반에 있던 1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보다 100배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에 있는 10살짜리 소녀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강조가 확실히 어긋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법, 법, 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없었지만, 세상에,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그것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었고,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그는 반율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기독교 생활에서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키웠고, 그것이 그의 CEF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성한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경전을 가르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전은 경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합니다. 복음이 거기에 제시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구호가 되었고 거룩한 말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글썄요,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시편 33편에서 좋은 구약 배경을 발견했는데, 숨쉬는 모습이 말하는 모습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쉬기.

시편 33편 6절.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숨결로 그 만상이 만들어졌다.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의 입의 숨결, 즉 하나님의 호흡과 평행을 이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인데,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의 거룩한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말씀된 것인데, 물론 그것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는 궁극적인 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 저자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숨을 내쉬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영감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감은 이것입니다. 만료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말할 때 숨을 내쉬지만, 저는 성경의 만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신학처럼 들리는데, 끔찍하네요. 나쁜 농담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성경은 신이 숨을 불어넣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그의 제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ESV이며, 네 가지에 유익합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신학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칼빈의 말씀의 유용성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예는 책망과 시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자체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시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데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한 시정적 특성은 시편 119편 전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의로움을 훈련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아이들을 훈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를 우리보다 더 잘, 더 오래 아는 인간에게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표현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의미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목사, 장로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출처로 삼은 것은 디모데전서 6:11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디모데후서 3:16과 17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만,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장로, 목사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녀 교육과 의로움에 유익하니 이는 목회자가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도구 상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표현하고, 어쩌면 핵심을 찌르기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디모데후서 3:14, 17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이 힘든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절). 그는 마지막 날 사람들의 최악스러운 생활 방식을 설명합니다(2절에서 9절).

오, 그들은 경건의 형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더라도 종교적일 것이다, 5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무가치한 사람들로서 진리를 대적할 것이다, 8절.

이러한 모든 사악함과 배교에 맞서 디모데는 가르침과 삶에서 바울의 모범을 따릅니다(10절과 1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과 사기꾼이 더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날에 교리적 오류와 도덕적 타락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구절은 바로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과 그 가르침과 그 사역, 충실한 사역은 이단과 나쁜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악한 사람과 사기꾼과 대조적으로, 13절에서 디모데는 다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가르침을 계속하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후서의 5분의 1이며, 그에게 올바른 교리와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구약성경의 신성한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바울은 구약을 디모데에게 구원을 위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신성한 경전으로 묘사합니다. 15절, 이 거룩한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룩한 글들만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16절, ESV.

바울은 신을 숨을 내쉬거나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33, 6을 보십시오. 즉, 성경은 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성경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유용하거나 유익하다고 더 설명합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확신시키고, 바로잡고, 향상시키고, 의로움으로 훈련하는 데 유용한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유용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 또는 장로를 완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11 참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목사를 유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전파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단순히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1에서 5까지. 이 놀라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적 영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셋째, 글 자체는 영감을 받은 필자만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방식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은 효과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위대한 영감 구절을 다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수세기 동안 성경의 영감이 무엇이라고 이해되어 왔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14절에서 17절까지.